

태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513천 Km ²	GDP	3,189억 달러(2010년)
인구	69.1백만 명(2010년)	1인당 GDP	4,720달러(2010년)
정치체제	입헌군주하의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aht(Bt)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환율(달러당)	31.69(2010년)

- 태국은 ASEAN 국가 중 인구 4위, GDP 규모 2위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으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 및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님.
- 입헌군주국인 태국은 1946년 즉위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국가원수로서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총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2011년 7월 총선에서 프어타이당의 총재이자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이 28대 총리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태국은 2010년 기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에 육박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수출대상국도 미국, 일본, 중국 등에 편중되어 있음. 2010년 경제위기 회복에 따라 7.8%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한 대홍수로 전년 대비 큰 폭 하락한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 신규차입 감소 등으로 외채규모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받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5.0	2.5	-2.3	7.8	1.2
재정수지 / GDP	-2.3	-1.1	-4.4	-1.3	-2.9
소비자물가상승률	2.3	5.4	-0.9	3.3	4.1

자료: IMF 및 EIU.

□ 50년만의 대규모 홍수로 2011년 경제성장률 큰 폭 하락 전망

- 태국 경제는 2008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수입수요 감소, 산업생산 위축, 내수 부진과 함께 잦은 총리 교체, 방콕 공항 폐쇄와 같은 반정부 시위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5%로 둔화되었음.
- 2009년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이 본격화되어 주요 교역 대상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세 지속,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 고정자본투자 위축 등으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세계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태국의 수출 산업이 호조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산업생산이 2009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14.4%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2010년 경제성장률은 7.8%까지 상승하였음.
-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농작물 파괴, 산업설비 가동 중단, 전력 공급 부족, 교통망 통제 등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큰 폭 하락한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에는 산업생산 회복과 피해복구 관련 설비투자 활성화 등으로 약 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규모 증가

-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증가로 2009년에 GDP 대비 4.4%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재정적자가 GDP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태국 정부가 홍수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약 40억 달러를 산업단지 및 주거지 복구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2011/12 회계연도 정부지출 예산을 확대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2.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복구작업에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2년에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세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속히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로 소비자물가가 0.85%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음.
- 2009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기의 회복으로 수출산업 및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원유와 국제 상품가격이 상승하면서 2010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3%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 국제물가 상승 지속과 2011년 하반기 발생한 홍수로 인한 농업 및 제조업 생산 감소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12월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6.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4.1%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태국 정부가 내수 촉진과 수출의존도 감소를 위해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약 40% 인상하고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추가적인 물가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음.

□ 경기위축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단행

-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BOT)은 국내소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준금리를 250bp 인하한 이후 1.25% 수준에서 유지하다가 2010년 7월 1.5%로 25bp만큼 인상하였음.
- 이후 태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히 확장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10년 8월부터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25bp 인상하여 3.5%를 유지하였으나, 홍수 피해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11월 통화위원회에서 2년 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3.25%로 조정함.
 - 통화위원회는 홍수의 피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데다 세계 경제가 하향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을 무릅쓰고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으며 2012년 초까지는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외경제 의존도

- 태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45.6%이며, 주로 전기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다국적기업이 아시아 수출기지로의 활용을 위해 진출해 있음.
 -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전기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 진출해 있으며, 특히 자동차산업은 혼다,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회사들의 동남아시아 지역 생산기지로써 태국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임.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등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아 경제위기 발생시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경기 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어 2010년에는 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숙련노동자 부족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태국 노동시장은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주변 경쟁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는 139개 국가 중 우리나라(78위), 대만(34위) 등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24위를 기록하여 홍콩과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순위임.
- 반면 투자개발 및 혁신 부문을 이끌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이 외국 기업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으며, 숙련노동자 공급을 위해 태국 정부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들 간에 일관적인 정책이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고급 인력 부족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학력 노동자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나. 성장 잠재력

□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풍부

- 태국은 ASEAN의 중심 국가로서 튼튼한 내수시장과 전자산업 중심의 비교적 건실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태국은 10개 ASEAN 회원국 중 2010년 기준 인구 4위(6,814만명), GDP 규모 2위(3,189억 달러), 상품 및 서비스 수출 3위(2,277억 달러) 등 대부분 경제사회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FTA 체결을 통한 외국인투자 및 교역 확대

- 태국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페루, 인도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임. FTA 체결로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어 선진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를 통한 수출국가 다변화 및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 그리고 외국인투자 확대가 태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주효

- 태국은 농업기반의 전통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음.
- 유연한 노동시장과 친기업적인 노동법 등으로 전기전자산업 및 자동차 산업에 다국적기업이 진출하여 태국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함.

□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 프어타이당과 잉락 친나왓 당 대표 겸 총리는 집권 후 선거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복지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인프라개발 투자에는 정부지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 2005년 탁신 전 총리가 집권하여 대대적인 치수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부정부패로 축출된 이후 홍수방지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잉락 총리 집권 후에도 해당 부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였음.
- 하반기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자 태국 정부는 정책 기조를 수정하여 피해가 집중된 중앙 평원지역의 도로망 정비와 산업시설 복구에 예산 투입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있음.
- 정부의 예산확대를 통한 복구작업으로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률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재정수입 부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불가피함.
-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효과적인 홍수 및 자연재해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포플리즘 정책으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

- 프어타이당은 선거 공약인 최저임금 상향을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데 이어 2012년까지 민간부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약 40% 상승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선심성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정부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손실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012년까지 23%로 낮출 예정이며, 쌀 가격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농부들의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임.
- 위와 같은 포플리즘 정책은 2001년 탁신 전 총리 집권 때부터 만연했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유지되어 태국의 재정적자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 수입 규모 지속적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 태국은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수출 규모 3위인 수출주도형 국가이며, 2010년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1.3%에 육박할 정도로 대외거래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 상 수 지	15,678	2,211	21,861	14,754	10,178
경 상 수 지 / GDP	6.3	0.8	8.3	4.6	3.0
상 품 수 지	26,762	17,385	32,690	32,339	30,221
수 출	151,240	175,215	150,712	193,610	231,867
수 입	124,478	157,830	118,022	161,271	201,646
외 환 보 유 액	85,110	108,317	133,599	165,656	169,974
총 외 채 잔 액	48,644	54,858	58,755	74,048	84,329
총외채잔액/GDP	19.7	20.1	22.3	23.2	24.5
D. S. R.	11.8	7.9	6.8	4.0	4.8

자료: IFS 및 EIU.

- 2010년 세계경기 회복세로 대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전년 대비 28.5% 증가하였으나, 국내 소비·투자의 회복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인 36.6%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2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태국은 수입 중 수출용 원자재와 원유 등 원료의 비중이 높아 경기 회복기에 수출이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해 수입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2010년의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동반되어 수입이 더 큰 폭 상승하였음.
- 2011년에는 주요국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시장 위축과 홍수 피해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장비수입 증가로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상회하여 상품수지 흑자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 전망

- 흑자 기조를 유지하던 경상수지는 2005년 쓰나미로 인한 관광산업 부진과 이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GDP 대비 4.3%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수출증가 및 관광산업 호조로 2006년부터 다시 흑자로 반전되었음.
- 상품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들의 무역 관련 서비스 수요 확대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태국 진출 외국기업들의 이윤 및 배당금 수취로 소득수지 또한 적자를 유지함에 따라 2010년 경상수지 흑자는 약 148억 달러(GDP의 4.6% 수준)로 감소하였음.
- 2011년에도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6.5% 감소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은 GDP의 3% 수준인 약 10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관련 지표 안정적

- 태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 신규 차입 감소,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외채관련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GDP 대비 외채규모는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93.8%에서 2008년 20.1%까지 하락하였으나,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GDP 대비 22.3%로 다시 확대되었음.

- 2010년에 외채잔액이 740억으로 크게 증가하여 GDP 대비 비중이 전년 보다 상승한 23.2%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GDP 대비 2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또한 2009년에 31.5%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후 2010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31.7%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약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2009년도 말 외환보유액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23.3% 상승하였으며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0년에 1,65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1년 9월 말 기준 약 1,700억 달러로 증가함.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도 2008년 5.9개월 수준에서 2009년 9.5개월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수입 증가로 하락세를 보여 2010년 8.9개월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9월 말 기준 7.5개월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총선에서 친탁신계의 프어타이당 집권

- 2011년 7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최대야당이자 친탁신계인 프어타이당 (Pheu Thai Party)이 총 500개 의석 중 과반수가 넘는 265석을 차지하여 집권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당 총재인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이 28대 총리로 임명됨.
- 잉락 친나왓은 정치경력이 전무하나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이라는 정치적 후광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서 당을 이끌고 압승한 것으로 분석됨.
- 총선을 통해 탁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함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탁신 전 총리의 사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친정부세력과 반대세력간 갈등 지속

-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실시된 2007년 12월 총선에서 사막 순다라벳(Samak Sunthorawet) 국민의 힘(People's Power Party: PPP)당 총재가 총리로 취임하였으나, 2008년 5월 국민민주주의연대(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PAD)의 반정부 시위로 시위대와 친정부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여 태국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하였음.
- 헌법재판소가 공직자 겸직 금지 위반으로 사막 총리의 사퇴를 결정함에 따라 솜차이 웅사왓(Somchai Wongsawat) 교육 부총리가 26대 총리로 선출되었으나, 2008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탁신계열의 집권 정당연합에 대해 선거부정을 이유로 해체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내각이 총사퇴하였음.
- 이후 총리 선출 투표실시 결과 솜차이 총리가 물러나고 민주당(Democratic Party: DP)의 아피싯 웨차치(Apisit Vejjajiva) 총리가 취임하여 2011년 상반기까지 총리 업무를 수행함.
- 한편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독재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National United Front of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UDD)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정부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관광산업이 침체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
- 2011년 총선에서 친탁신계인 프어타이당의 승리로 임명된 잉락 총리가 탁신 전 총리의 사면 및 탁신 지지자들의 정부 요직 임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정국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국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특별 사면에 탁신 전 총리를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이어질 정정 불안을 감안하여 사면 대상에서 제외함.

□ 홍수로 잉락 총리에 대한 지지도 하락

- 9월 중 관개부(Irrigation Ministry) 및 수자원 관리실에서 홍수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당국은 10월 12일야 26개 주에 재난구역을 선포하는 등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음.

- 또한 당국이 수도 방콕과 주변 지역의 피해 상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 부문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음.
-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잉락 총리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되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잉락 총리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잉락 총리는 이번 홍수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대신 10월 21일에 재해예방·경감법을 발효하여 홍수 대처 및 구호작업에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
- 한편 잉락 총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홍수 피해지역을 돌아다니며 민심 수습에 전념하고 있으며, 야당 및 반대 세력의 의견을 수렴하며 초당적 차원의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홍수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안 지속 전망

- 2011년 8월 이후 5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국토의 80% 이상이 피해를 입음. 사망자 수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방콕 이외 지역의 경우 70만 채의 가옥이 침수되어 1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
- 몬순 기후에 속하는 태국은 매년 5~9월 사이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2011년의 경우 지난 30년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비가 내려 방콕 근처 중부 저지대에 쌓여 있다가 흘러넘쳐서 방콕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임.
- 홍수로 농지가 물에 잠기고 약 1,000개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여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었으며 주요 도로 및 교통망이 통제되어 물류 운송이 지연되는 등 사회인프라 파괴가 심각함.
- 가동을 중단한 공장 중에는 일본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기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피해로 인해 공장 이전을 고려하는 등 추후 외국인투자 유입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침수지역 거주민들의 경우 전력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여 비상 디젤 발전에 의존함에 따라 당국은 조속한 전력망 구축에 힘쓰고 있음.

3. 국제관계

□ 동남아 지역과의 관계 강화

- 태국은 1967년 동남아시아 국가 간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창설과 함께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AFTA) 창설 또한 주도적으로 제안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음.

□ 양자 및 다자간 무역확대 움직임

- 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여러 국가와의 FTA 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확대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탁신 정부 이후 과거 소규모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화를 통해 세계 3대 지역 중 한 축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일본은 태국과 2007년 경제동반자관계협정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약 62억 바트의 투자 승인을 얻음으로써 제1위의 투자국 위치를 차지하였음.
- 한편 태국은 2003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중단되었던 미국과의 FTA 협상을 2009년 2월에 3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여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 완화 조짐

- 캄보디아-태국 간 오랜 분쟁지역이었던 국경지대의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 사원의 영유권을 두고 양국의 군대가 국경에서 대치하면서 여러 차례 교전을 벌였으며, 2011년 2월에도 교전이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는 등 국경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음.

- 민주당 집권기간 동안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탁신 전 태국 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으나, 2011년 7월 총선 이후 취임한 잉락 총리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국경문제 해결에 전환점을 맞이함.
- 양국은 태국만 26,000km² 규모 해역의 유전 및 가스전 공동개발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UN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 국경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지정하여 평화 조성에 힘쓰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양국 간의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후 추가적인 국경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외지급능력 양호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 신규 차입 감소 등으로 외채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D.S.R. 및 GDP 대비 단기외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태국은 S&P, Moody's, Fitch 등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는 2008년 12월 태국의 공황 폐쇄와 반정부 시위를 반영하여 BBB+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으나, 2010년 12월 정치 및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다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재까지 동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2 (2011.12)	B2 (2011. 5)
OECD	3등급 (2011. 3)	3등급 (2010. 4)
S&P	BBB+ (2011.11)	BBB+ (2010.12)
Moody's	Baa1 (2011.10)	Baa1 (2011. 3)
Fitch	BBB (2011. 5)	BBB (2010. 4)

* Euromoney: 62/186 (2010. 3) → 45/186 (2010. 9) → 42/186 (2011. 3)

* I.I.: 52/177 (2010. 9) → 49/177 (2011. 3) → 49/178 (2011. 9)

* I.C.R.G.: 89/140 (2009.12) → 67/140 (2010.12) → 62/140 (2011.11)

- Fitch는 2009년 4월 태국 정부가 폭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정국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태국 장기외화표시채권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으로 하향조정하였음.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렸으며 이후 2011년 5월까지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능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58년 10월 1일 (북한과의 수교 : 1975년 5월 8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1), 항공협정(1968), 이중과세방지협약(1977), 일반여권사증면제협정(1981), 과학기술협력협정(1985), 투자보장협정(1989), 해상운송협정(2002), 문화교육협정(2004)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태국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양자관계는 물론 ASEAN, ASEM, APEC 등 다자관계를 통해서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표 4>

한·태국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태국	2009	2010	2011(1~10월)	주요품목
수 출	4,528	6,460	7,213	철강판, 레일 및 철구조물, 금은 및 백금
수 입	3,239	4,169	4,720	임산부산물, 반도체, 기호식품
합 계	7,767	10,629	11,933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7년 12월 한-ASEAN FTA 최종 합의, 2009년 6월 한-ASEAN FTA 투자협정 서명 등을 통해 외교, 정치뿐 아니라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를 반영하듯 태국과의 교역규모는 2009년 중 경기 침체로 인해 교역 규모가 77억 달러로 다소 감소한 이후 경기 회복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06억 달러, 2011년 1~10월 중 120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우리기업의 대 태국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9월말 기준 총 675건(신규법인 수 기준), 17억 2,467만 달러(투자누계 기준)를 기록하였음.

VI. 종합 의견

- 태국 경제는 2009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3%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 등 주력 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0년 경제성장률이 7.8%까지 상승함. 2011년 홍수 피해로 제조업 및 농업 생산이 감소하고 주요 인프라가 파괴됨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가 1.2%로 큰 폭 하향조정됨.
- 재정수지 적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수 증대로 2010년에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2011년에는 2.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9년 디플레이션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여 2010년 중 3.3%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국제상품 가격 상승과 농업 및 제조업 생산 감소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4.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군부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퇴임한 이후 친-반 탁신 세력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1년 총선에서 친탁신계인 프어타이당의 승리로 임명된 잉락 총리가 탁신 전 총리의 사면 및 탁신 지지자들의 정부 요직 임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정국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0년말 기준 외채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외환보유액 역시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D.S.R. 및 단기외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이 순 재 (☎02-3779-5705)
E-mail: soonjaelee@koreaexim.go.kr